활살

시사만화잡지

№9 (58) 1955. 9

송용남 그림

3 - AUG - 9
Copy ______ 1960

절실한 념원

통일된 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절실한 념원을 가로 막는 자는 누구냐…

안창수 그림

질겁하는 원인

우리 조선에는 『엉큼한 놈이 동내 팔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그런데 오늘 남조선에는 동내 뿐만 아니라 조국까지도 팔아 먹기에 서슴치 않는『엉큼한 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

허다한 경우『엉큼한 놈』치고 제법 으젓하게『점잖은 척』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미국이 30년 간이나 애써 길러 냈다고 하는 남조선에 있는 오늘의『엉큼한 놈』은 아주 문제가 다르다。그건 지금 남조선 인민들이 "개승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막 물어내 놓고서 해 먹을려고 덤비는 미친개이다。그렇다! 이 미친개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마냥 덮어 놓고 짖어대는 버릇까지 있다。그래서 해를 보고도 짖고 달이나 별을 보고도 짖는가 하면 심지어는 보는 것 듣는 것은 무엇이나 기를 쓰면서 짖어대군 한다。

어째 그 뿐이랴… 그 주제에다 제법 깜찍스런 "구호" 까지 외우면서 짖어대기도 한다。『북진 통일』『실지 회복』하고… 그런데 이 미친개 같은『엉큼한 놈』에게도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무얼까? 바로 평화적 조국 통일 문제이다。그래 이 말만 들어도 이『엉큼한 놈』은 매본 꿩마냥, 고양이 본 쥐 새끼마냥 사지를 바르르 떨면서 금시 숨 넘어가는 소리로『결사 반대』를 되뇌인다。

글세 생각해 보라! 그게 무슨 까닭인가를… 그거야 뻔하다。『엉큼한 놈』의 심보로서는 모든 것이 되도록은 제 놈의 욕심대로 만만하게 휘감겨 돌아가야만 하겠는데…… 또 그래야만 제 상전의 지시대로 충실히 리행할 수가 있겠는데… 천만에 언제나 조국을 사랑하고 또 지켜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는 10년 간을 두고 튼튼히 쌓올린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가 있으며 이에 굳건히 의거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이『엉큼한 놈』의 매국 수작을 그대로는 안둘테니 더욱 발광을 할 수 밖에……

어째 그 뿐인가? 동내가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팔아 먹기 위하여 날뛰는『엉큼한 놈』으로선 우선 한 동안만이라도 인심을 얻고야 수작을 부릴 수도 있는 법이다。그러나 전체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로 되고 있는 남조선의『엉큼한 놈』에겐 오직 하나—제 욕심껏 거저 먹겠다는 보다 더 엉큼한 상전—미국이 있을 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전체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날로 장성 강화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절대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제안을『엉큼한 놈』으로선 어찌 질겁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래서 엉겁결에 또『결사 반대』하고 짖어대며 발악을 하는 것이다。

—참 조선 사람들의 풍부한 혁명적 락천성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인민의 크나큰 력량은 인간의 생리학적 분석만으로는 리해할 수 없습니다

—벌써 질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군요 그러니 전후에 4차나 물가를 인하할 수가 있었겠지요

대경 실색하는 원인

10년 전—위대한 쏘베트 군대는 아세아에서의 침략의 원흉이였으며 전쟁의 근원이였던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에 종지부를 찍었다。그리하여 인류가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위대한 쏘련의 세계사적 승리는 아세아의 수 많은 인민들에게 해방과 독립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따라서 아세아 인민들은 더욱 친근한 감정으로 쏘련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는 쏘련에 대한 아세아 인민들의 친근한 감정을 아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열렬한』인사들이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말하는 바에 의하면 아세아에서의『공산주의의 위협』때문이라고 한다。

웬 딴 소리를!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될 것인가?

최근에 미국의『열렬한』국회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맥카디가 무어라고 말했는가?

『남부 월남으로 하여금 북부 월남을 공격케 하며 장개석으로 하여금 중국 대륙을 공격케 하며 리승만으로 하여금 북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고무하여야 한다』고 그는『대담하게』떠들어 대였다。그르 말한다면 조선, 중국, 월남 등지를『위험한 지역』이라고 간주하는데서…다시 말하면 영웅적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함으로써 평화와 해방을 가져다 준 약소 민족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평화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 인민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아 인민들을『위험한』것으로 보는 데서부터 지체 없는 공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니 문제는 명백하다。이『열렬한』인사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란 것을 알 수 있다。또 쏘련에 대하여 중상하며『겁』을 먹는 것은『공산주의의 위협』때문인 것이 아니라 쏘련의 시종일관한 평화 정책이며 인민들 속에서 날로 높아져 가는 쏘련에 대한 신망 때문이란 것도 알 수 있다。

글세 보라! 오늘의 아세아 인민들이 무엇을 환영하고 있으며 누구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가를…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거센 웨침을『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떠버릴 까닭이 어데 있는가? 또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의 성새로서 쏘련을 존경한다 해서 대경 실색하여 소란하게 할 필요도 물론 없는 것이다。

승 화

고마운 날

백인균 그림

—아저씨 오늘은 기쁜 날이죠!
—암 기쁜 날이지 쏘련 군대 아저씨가 지나간 곳에는 이렇게 광명을 가져 온단다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 조선 인민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였다 이로써 조선 인민은 미제도 물리쳤고 복구 건설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나서고 있다

리영춘 그림

—우리는『심청전』을 통해서도 찬란하게 개화되고 있는 조선의 민족 문화 예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근로 남녀 청년들의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기상을 시위하는군요

—우리들은 조선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귀국한 후 우리 인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높은 성과를 위하여

장쾌한 출강이 끝난 후 용해 브리가다장 만삼은 오늘 작업에서의 우 결함을 지적한 다음 이런 말을 첨부하였다.

『동무들이 한 사람처럼 발휘한 열성은 오늘 출강에서도 책임량을 훌륭히 초과했소 앞으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해 주시요』

『우리 강선 제강소는 일제 때보다 한번 용해 시간을 열 시간이나 더 단축하고 있으며 일회의 국가 기준량도 초과하고 있소 그런데 왜? 강괴 생산은 계획량을 달성 못하는거요 난 정말 안타까워 죽겠소』

용해공 경수는 가슴이 아픈듯 웨쳤다.『그거야 뻔한 일 아닌가… 물론 우리들의 연구성이 부족한 데서 오작품을 내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이며 한편 50톤 가중기에 알맞는 모러며 강괴 케스 등 제때 해결돼야만 할 것이 아직 그대로 있지… 또 던칭로 대 보수가 두 달 정이나 늦어지구… 말하자면 생산 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데야 강철을 뱃속에서 녹여 내겠소?』

조괴공 태현 령감이 맞받아 대답했다.

『난 인제 강철이 얼까바 걱정이다이… 절름발이 우기 대책 때문에 여름 장마철엔 석회로 굴속에서 꼴 사태가 나서 골탕을 먹었는데 인제 또 굼벙이 동기 대책으로 겨울에는 필경 집안에서 눈보라가 치겠으니 강괴가 추워 떨겠다이…』

롱담 잘하는 덕천이가 하는 말이다.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생산에 대한 심각한 책임성이 부족하오 문수네 교대반에선 선불로 두 남비의 오작품을 내여 수십 만원의 손실을 국가에 주었소 또 요전에 제강 직장과 계획부에서처럼 "계획이 많다"느니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느니 하면서 말 실갱이만 하다나면 생산은 누가 책임 지겠소 문제는 생산에서 어떻게 곤난을 타개하는 가에 달렸단 말이요』하고 직맹 반장 송학이가 말했다.

『지금 여러 동무들이 말한 문제들이 다 우리들의 사상 의식에 달렸소 우리는 작년 9월에 4개월이나 복구기간 단축을 "만세!" 부른 분괴 직장의 대형 압연기가 그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생산을 하게 된 쓰라린 경험과 작년 년말 전으로 대 보수를 했어야 할 전기로들을 정월 초하룻날도 쉬우지 못했던 결과는 금년도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우리 제강소의 일부 일꾼들의 머릿 속에는 아직도 생산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결함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예견성이 없이 덮어놓고 하면 된다는 낡은 인식이 남아 있소 때문에 생산에서 제기되는 곤난과 애로를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 책임 전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같이 투쟁해야 하오 그러면서 생산을 직접 담당한 우리들은 기술 수준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도 일꾼들은 정확한 사업 지도를 함으로써 전체가 호흡이 딱 들어 맞어야만 한단 말이요』

브리가다장 만삼은 이렇게 강조했다.

『옳다이 생산을 많이 내기 위해선 누구할 것 없이 그 얄구진 만성 형식주의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이…』하고 불쑥 던지는 덕천이의 말에 그만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석 봉

더욱 힘차게 앞으로!

박승히 그림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8.15 해방 10주년 기념 경축 증산 경쟁 운동에서 높은 창조적 성과를 거두었다

보호색털빛의 소유자

정 준 기

처세에 『익숙』한 그는
상냥스럽기도 하고
감촉이 빨라
어떤 사람에겐 마음에 들 수도 있다

나무 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날에도
바람을 붙잡는
거미의 촉각도 부러워 하리

웃사람의 입가를 스치는
잔 주름에서도
오늘은 어데로 부는지
알아 채린다

지시를 받는
책상 머리에 서면
심히 엄숙한 표정으로!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두 손을 슬슬 부비기도 하며
—옳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옳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왼쪽 눈섭이 움직이면
왼쪽으로
오른쪽 눈섭이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바삐 달린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안고
황송한 표정으로
찾아 올 때는
그가 사업 결과를 말하려는 것
서두를 떼고는 흘끔흘끔
두마디 말하고는 흘끔흘끔
보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빛을 읽는다

회의에 참가하면
안건이 상관 없다
어느 언덕으로 밀려 가는가
물결에 따라
몸을 돌린다
『튼튼한』 바위에 올라 왔으면
기세도 등등하련만
사정이 달라지면
야릇한 자기 비판의 말소리도
감격하여 떨리는데…
(이것은 바람에 따라
돛을 돌리는 소리)

처세에 『익숙』한 그를
주변이 없는 말 솜씨로
타일르려는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즉
작자의 멀미를 집혀 세우고
그 보호색 털끝을
모조리 뽑아 버리자

그러면
그도 좀 시원할 것이고
우리들의 일터에도
신선한 공기가 돌테니

겨울 동안의 벽돌 생산 보장—이것은 원토 보온 장치가 가장 긴요한 고비라는 것을 모를리 없건만 일부 벽돌 공장들에선 아직껏 이에 대한 대책이 굼뜨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알고도 안하는게 큰 탈

—여름가고 락엽지면 눈보라 머지않은 줄 왜 모르고…

—얼어 붙은 원토 우에서 끌사납게 몸부림친들 어이하리…

최한진 그림

하나를 보러 왔다가 둘을 보았다!

—녀성 동무 일 솜씨가 훌륭한데

—제품을 구경하시죠
—참 좋은데… 기대도 수입품이겠지…

—아니 이 선반기가 국내 제품이 아니요 수입품으로만 알았더니…

—저렇게 훌륭한 기계가 우리 손에서 나오게 된 것은 곧 우리의 기술 수준이 발전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거란 말야…

송룡남 그림

탐조등

『편리』한 방문

『입장권 주십시요』

『지배인 있소?』

『네… 무슨 일인지요』

『동무 영화 보러 온 사람인 줄 아우? 용무가 있어 지배인을 만나려고 왔소』

결국 지배인실에 들어간 그는

『요지음 바쁘십니까?』

『그저 여전합니다』

『관람자들이 많구만요』

『네 많습니다』

『영화프로가좋아서 바쁘시겠는데…어서일보십시요』

그는 지배인실에서 나와 두어번 헛기침을 하고는 관람석에 가 앉는다。

× × ×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말쑥하게 채린 사람이 나타나…

『여보 문 여우』

『상연 중입니다』

『빨리 여오 볼 일이 있소』

『누구십니까?』

『나요』

『나라니 누구십니까?』

『얼구 보면 알 것 아니요』

『입장권 주십시요』

『아하… 동무는 웬 딴 소리요… 지배인 있소?』

『네 있습니다』

그는 지배인실 문을 열고

『수고 하우 난 저… 늘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관람실로 들어간다。

× × ×

서평양 영화관 지배인은 며칠 전에 새로 임명되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 알지도 못하는『편리』한 방문객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니… 머리가 얼떨떨할 지경…

방임과 억압의 후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아이들의 교양에 대하여 일부 가정과 교원들은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 있는가?

교통이 복잡한 거리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좌측 우측을 분간 없이 떼를 지어 무질서하게 우루루 몰려 다닌다。그 뿐인가。자동차들이 끊임 없이 달리는 거리한 복판에서 편을 갈라 뽈차기를 하며 진 치기를 하노라고 정신을 팔고 있다。 결과에 이따금 불상 사고가 발생하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초저녁부터 각 영화관 앞에는 아이들의 사태가 난다。서로 밀고 당기고 차고 야단 법석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집안에 돌총을 쏘아 유리를 깨고 문짝을 마수어 사람들을 놀래운다。

이러한 장난과 취미가 좀 더 발전하면 장마에 몰려다니며 매식을 하고 싸움질을 하는 것이 유일한 재미로 된다。다음엔 부모를 속이고 학교에 안가는 일도 예사로 된다。얼마나 위험한 현상인가?

이런 현상에 대하여 일부 부모들 가운데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으며 또 욕설과 억압으로써 어린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몇몇 부모들도 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부모들은 항상 학교 선생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뜨거운 심정으로 교양하기에 습관화 되여야 한다。

숙망은 이루어졌다

—우리 선조 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 왔지만 자연 개조란 말은 처음 듣는데…

—인민의 힘은 새 력사를 창조합니다!

금번 공화국 정부에서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고무 격려된 공화국 각지의 농민들은 불길 같은 기세로 알곡 증수를 위한 투쟁에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영근 그림

「중병 환자」

안주군 운송리 제2 농업 협동 조합 사무실 앞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늪』이 생겨 오리들이 헤염치며 여름철 더위를 신선 놀음으로 보내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농촌 지도를 나온 두 사람이 『늪』옆에 서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간 땀 이나 들이자고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쉬지도 못하고 괴롭만 느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잡다하게 떠드는 말 소리로 인해서……

× × ×

『위원장 동무의 머리가 동이만큼 크대』

『뭐? 그럼 무슨 병이라도 들었나?』

『아주 중병이 들었대…』

『아무리 중병이라구 해도 그럴 수 있나?… 난 도무지 알 수 없네…』

『글세 내 말 들어 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요먼저 이런 일이 있었지… 4 작업반에선 다섯 사람이 하루 할 일을 27명이나 달려 붙어 하다가 다른 논판으로 우루루 오리들처럼 무리를 지어 몇번씩 이동하느라고 해를 보냈대』

『그건 나도 알아… 그들이 앞산골개로 뒷산골개로 드렁바위 밑으로 우루루 무리를 지어 몰켜 다니기만 하는 걸 봤지』

『옳아 그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이 많이 토의하고 앞으로는 작업 조직을 옳게 함으로써 로력 랑비를 금하자구 했어… 그러나 위원장 동무는 "협동 로력에 대한 의의를 모르고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시비를 마우" 이렇게 말 했어』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글세 들어봐 그리구 말이야 아이 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린애 있는 녀성 조합원들을 8명이나 내여 보냈대』

『뭐이라?』

『제일 일이 바쁜 때 탁아소도 설치하지 않고 1년 동안에 150로력일을 획득하지 못하면 무효로 된다고 규약에 정해 있다 해서 "아이 있는 녀성 동무들은 이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테니 조합에서 나가 계절 로력으로 일하는 것이 좋아" 하고 위원장 동무가 고집하여 독단으로 처리했대』

『지금 조합에 로력이 모자라 일이 엉망진창인 데두… 글세 오직이나 일손이 모자랐으면 요먼저 관개 수로의 보뚝이 터진 걸 그냥 내깔라 누어 이 아래 논판이 늪처럼 되여 오리들이 헤염칠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지금 조합 일이 이런 판이란 말야…』

× × ×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사무실로 찾아 들어 갔다。 사무실 안은 엄숙해 졌다。

그리하여 이 조합의 암초는 이렇게 찾아 내였다。

…힘든 일이면 미리 앉아서 "점"을 치고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논판이 늪처럼 되여 오리들이 헤염쳐도 자기 고집만 제일이라구 조합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것 저것 안고 엄벙덤벙 돌아가다가 시끄러우면 벌렁 나가 자빠지는 낡은 사상 찌꺼기가 머리에 그득 찼다는 것이였다。

그러니 조합원들도 나쁜 것을 말로만 횡설 수설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같이 달라 붙어 군중적 힘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시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합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단단히 약을 먹어야 하겠는데…』

『웬만히 병 들어야 주사나 약이 효과 있지 그러한 중병 환자에겐 수술을 해야돼』 하고 모두들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다。

류 달

꼭 고쳐야 할 일

(一)

『참 반갑수다 모범 전투원이니 그야

(二)

『농촌 경리 발전! 말만 해도 힘이 부썩부썩 나거든…… 농촌의 핵심으로서 일해야지! 농촌은 참 좋아! 얼마나 아름답소 가을에 괴장하겠지! 곡식들을

"인민 조선" "활살" 문예 작품 현상 모집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사에서는 독자 및 열성 필자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해방 후 10년간 근로 인민들 속에서 장성된 문예 창작 성과를 총화하며 그들을 잡지 편집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을 실시한다.

1. 작품의 주제

(1)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과 조•쏘 인민간의 형제적 친선.

(2)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3)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조선 인민의 투쟁.

특히 해방 후 10년간의 인민 경제의 발전 면모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창조적 투쟁 모습과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4)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영용한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및 빨찌산들과 후방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투쟁.

(5) 조국 보위를 위하여 방선에서 높은 경각성 밑에 전투 정치 훈련에 정진하고 있는 인민 군대의 군무 생활 모습.

(6) 인민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배양 및 반탐오, 반랑비, 반관료주의와 반간첩 투쟁.

(7)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조선 인민의 시종 일관한 투쟁모습.

(8) 조선 력사에서 애국적 위훈을 세운 우리 선렬들의 투쟁 모습.

(9)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및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각 분야에 걸친 물질적 기술적 원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0)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죄악성과 몰락성을 폭로 규탄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모습을 주제로 한 것.

(11)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들과 고귀한 문화 유물들을 형상화한 작품.

2. 모집 종별

(1) 문학 작품

ㄱ. 단시 (풍자시)

ㄴ. 단편 소설 (풍자 소설)

ㄷ. 오체르크

ㄹ. 력사 이야기 (전설, 속담, 리언, 기담, 우화 등을 포함)

ㅁ. 펠레똔 (만문 포함)

(2) 미술 작품

ㄱ. 조선화, 유화, 수채화 (20호 내외)

개미와 베짱이

…를 좀 들어보렴

… 바쁘다오!

리영춘 그림

… 들어보렴!

…원 투자 중에는 막대한 자재가 직장…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일군들은 자…를 추진시키지 못하고서 어리매매히 …를 좀먹는 엄중한 현상까지 있다

… 근시안을 가지고서 드려다보… 계획은 언제 수립하는거요?

최영근 그림

숙망은 이루어졌다

—우리 선조…
지만 자연…

ㄴ. 스켓취
ㄷ. 정치 만화
ㄹ. 련속 만화
ㅁ. 유모어 만화 (사회 생활에서 취재한 교육적 유모어)
(3) 사진 작품—예술 사진

3. 모집 기간

1955년 7월 15일부터 1955년 11월 15일까지

4. 모집 절차

(1) 응모 자격 응모 자격에 제한이 없음.
(2) 작품 제출 방법
응모 작품은 직접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되 응모자의 성명, 직업, 직위, 년령, 성별, 주소를 명기할 것,
응모 작품중 단시, 단편 소설, 오체르크, 력사 이야기, 조선화, 유화, 수채화, 스켓취, 예술 사진 등은 인민 조선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며 풍자시, 풍자 소설, 폐레똔, 만문, 정치 만화, 련속 만화, 련속화, 유모어 등은 활살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심사 발표

인민 조선, 활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955년 12월 하순에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한다.
입상 작품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동시 가작을 선출하여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게재할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응모 작품을 보낼 때 겉봉에 현상 응모 작품 이라고 반드시 기입할 것.
응모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시 상

1등 6,000원~20,000원
2등 4,000원~15,000원
3등 [illegible],000원~10,000원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전화—평양 387번)
인 민 조 선 사
평양시 서구역 평화동 (전화—서평양 580번)
활 살 사

「중…

안주군 운송리 제2 농업 협…
겨 오리들이 헤엄치며 여름철…
의 시선을 이끌었다。
농촌 지도를 나온 두 사람이…
들이자고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쉬지도 못…
떠드는 말 소리로 인해서……

×

『위원장 동무의 머리가 동…
『뭐? 그럼 무슨 병이라도…
『아주 중병이 들었대…』
『아무리 중병이라구 해도 …
『글쎄 내 말 들어 보게… 외…
반에선 다섯 사람이 하루 할…
루루 오리들처럼 무리를 지어…
『그건 나도 알아… 그들이…
리를 지어 몰켜 다니기만 하는…
『옳아 그 문제에 대해 조합…
함으로써 토력 랑비를 금하자구 했어… 그러나 위원장 동무는 "협동 토력에 대한 의의를 모르고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시비를 마우" 이렇게 말 했어』

『웬만히 병 들어야 수사나 약이 효과 있지 그러한 중병 환자에겐 수술을 해야돼』 하고 모두들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다.

류 달

꼭 고쳐야 할 일

(一)

『참 반갑수다 모범 전투원이니 그야 일도 잘 할게구 전선에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니 농촌에서도 많은 공로를 세우며 일할테지…… 우린 기쁘외다 훌륭한 제대 군인 동무들이 이렇게 찾아오니……』

제대 군인 동무들은 이렇듯 농촌 협동 조합 간부들의 입 인사를 받기에 어리둥절……

그러나 해가 서쪽에 기울 지음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실근실근 보더니 결국 관리 위원장이 어색한 얼굴로……

『당분간 있을 데가 있어야지……』

『아무 집이나 괜찮습니다』

『부기원 동무네 집은 좁아서』

『제 혼자인데…… 집이래야 이 배낭 뿐인걸요』

『우리 집은 "투추"하구……』

『일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꾸리지요 그런 걱정은 마십시요』

『3작업 반장 동무네 집이 방이 있긴 하지만……』

『아무데나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 집은 식구가 많아서…… 돌쇠 령감네가 집을 크게 짓기는 했지』

『그럼 그 집으로 갈까요?』

『그 집은 아직두 웃방은 구들도 안 놓았지……』

『?!』

이런 식으로 빈말 치레만 하면서 생활 대책을 굳트게 조직해 주는 일부 농촌 협동 조합의 관리 일군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진출한 청년 및 제대 군인들이 갈피를 못잡고 마음이 들떠지던다。

(二)

『농촌 경리 발전! 말만 해도 힘이 부쩍부쩍 나거든…… 농촌의 핵심으로서 일해야지! 농촌은 참 좋아! 얼마나 아름답소 가을엔 굉장하겠지! 곡식들을 산데미 같이 걷어 들이고……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 정말 농촌은 좋더군!』

커다란 포부를 안고 찾아 온 그들을 마을 사람들은 반겨 맞이하고 제때 집도 마련해 주며 살림을 꾸릴 준비도 다 해 주고 조합원으로서 같이 농사를 짓게끔 적극 방조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

『퍽 농촌을 희망하고 넓은 논 밭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면 푹 살이 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 어쩐지 도시 생각이 나거든……

고층 건물 화려한 거리 얼마나 좋소! 극장이며 공원…… 도서관 등』

『여게도 영화관이랑 도서관이랑 다 있지 않아…… 마을엔 이동 영사대가 오구』

『있기야 하지…… 허허…… 그러나 내 말하는건 화려한 도시가 농촌보다는 좀 더 매력이 있단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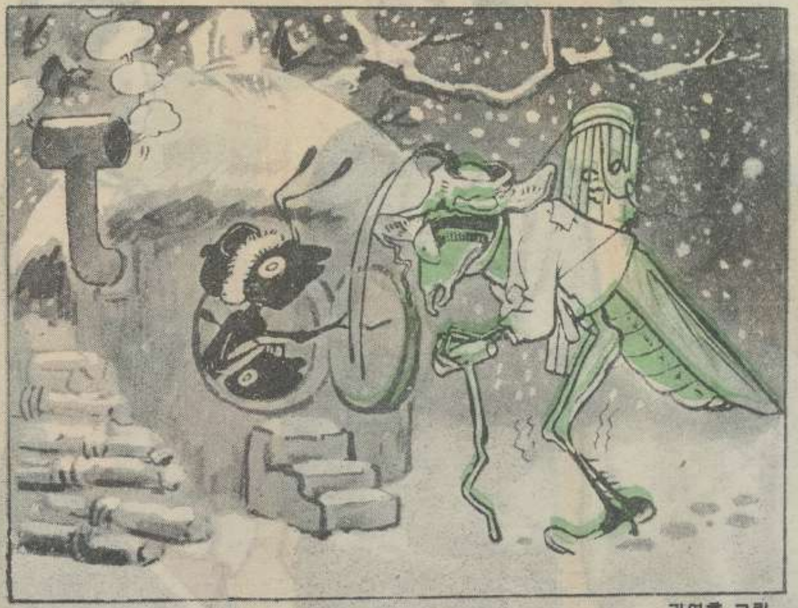
『동무! 그건 허영심이요 우리들은 농촌도 도시처럼 문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요 언제나 참된 행복은 로동 속에서 창조되는거요』

『?!』

목적 지향성 없는—허영심으로 인하여 일부 청년 및 제대 군인들 중에는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에서 일시나마 안착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개미와 베짱이

—때아닌 집구림은 그만 두고 내 노래를 좀 들어보렴
—아니 아니 지금 우리는 겨울 준비에 바쁘다오!



리영춘 그림

—개미! 동정을 바라오
—아니 이 베짱이 이제는 내 노래를 들어보렴!

어이 없는 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10억원 투자 중에는 막대한 자재가 지방적 공사 분으로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일군들은 자기 지방 실정에 적응한 공사를 추진시키지 못하고서 어리뻥뻥히 돌아가는가 하면 국가 자재를 좀먹는 엄중한 현상까지 있다

—동무! 그렇게 "제발 처리"는 것을 왜 국가 자재로써 자기집 『공사』부터 하는거요?

—동무들은 그렇게 쌓놓고도 또 부족해서 자재 청구만 하니 공사는 어느 세월에 하는거요?

동무! 그렇게 심한 근시안을 가지고서 드려다보니 실정에 알맞는 계획은 언제 수립하는거요?

최영근 그림

미술 전람회장에서

—우리 고향의 최 영근 전투 영웅 같군요
—그렇소!
—저 자국은 뭐예요?
—내가 몰고 간 뜨락또르 자리요
-모두가 우리의 실지 생활에서 취재한 훌륭한 작품들 뿐이군요

송룡남 그림

해방후 10년간 공화국 북반부의 민족 문화 예술은 진정한 인민의 예술로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며 인민들의 창조적 노력 속에서 찬란하게 개화되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우리의 민족적 명절을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남반부 예술인들에게도 8·15 해방 10주년 경축 예술 축전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리 승만 도당의 방해로 인하여 그들은 축전에 참석치 못하였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남반부 예술인들이 모이지 안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통일된 한 가정에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
이 달성한 성과를 다 같이 즐기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최한진 그림

무대 생활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배우들은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공화국 남반부의 예술인들은 경찰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안창수 그림

문화적인 「배려」

박승히 그림

—우리 미국 신사들은 남의 나라 문화를 옳게 평가해 주기도 하며 또한 발전을 위해 많은 때며도 돌려 줍니다 즉……

미술을 애호하고

생활 속에서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거리에서 음악도 들려 주고

교양적인 영화 보급과

성과적인 연극을 장려하는가 하면

청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식 운동 정신을 보급시키며…

우리의 리익과 결부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축 받아야만 맥쓰는 괴뢰

미제— 리승만 용기를 내시요! 용기를…

박승히 그림

소동

현 철

다 아는 바와 같이 리 승만은 지난 8월에 『옹진 개성 지구의 강점』과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축출』을 『엄숙히』 성명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외무 장관』 대리를 시켜 8월 13일 자정까지 남조선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고』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으로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로망을 부리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자기의 『단단한 결의』를 보여 주려는 듯이 리 승만은 자기의 친위병들인 살인 테로단 강도배 부랑배들과 지어는 매춘부까지 동원시켜 『애국적』인 『시위』 소동을 출연시켰다。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아도 동원되지 않는 『시위』 군중의 수에 약이 오른 리 승만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로이타 통신이 폭로한 바와 같이 『시위 참가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그래서 『가제도 게편』이라는 속담이 있으나 영국 외무성 조차도 『경동적인 행동』의 중지를 경고하고 있으며 일본 관변 측에서까지도 『발광자의 소동』이라고 비웃고 있다。

자기와 그리 인연이 멀지 않은 『동맹자』들에게서까지 조소와 규탄을 받는 리 승만의 발광증은 보통 병인가?

날로 멸망의 한길로만 들어가고 있는 리 승만 괴뢰 집단 내부의 알력은 소위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등의 파면에서 더욱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다

1866년 7월 28일 밤 중국 천진에 있던 미국 령사관 밀실에서……

『중요한 목적은 황금의 나라 조선 령토를 미국이 차지하는데 있소! 조선의 서해안 지대의 지형 정찰을 잘 하면서 평양 근처의 왕능에서 금은 보화, 금관 모두 모두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래일 새벽에 떠나시요 성공을 빕니다』

이리하여 대포로 무장한 해적선 〃샤만호〃는 조선을 향하였다.

8월 초순 〃샤만호〃의 해적 두목들은 황해도 동진에서 황주 목사 장 대식의 강경한 철거 명령을 모욕적 언사로 무시하고 평양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우리는 어데나 마음대로 갈 수 있소 조선의 금은 보화는 벌써 우리의 것이요』

오만 무례한 선장 쁘레스톤과 미국 상인 월손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암 그렇구 말구요』중국어에 능통한 영국 선교사 토마스도 아양을 떨었다。

8월 21일 〃샤만호〃는 평양 부근 초리방에 들어왔다。그들은 이미 식량이 떨어졌다。〃샤만호〃를 심사한 우리 나라 관헌들은 그들의 행동은 괫심하지만 인도상 할 수 없이 식량을 공급해 주고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선의 명산물에 맛을 드린 〃샤만호〃의 해적들은 총칼로 부근 주민들을 위협 공갈하면서 쌀과 소와 돼지, 닭과 계란, 신탄 등을 마음대로 략탈해 갔다。벌써 놈들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심은 불길처럼 일어났다。

8월 22일 놈들은 유서 깊은 만경대 두노두 앞까지 올라갔다。평양 순영 중군 리 현익은 놈들의 오만 무도한 행동을 중지시키려고 〃샤만호〃를 찾아갔다。

『우리 대포 많이 있소 우리 함대 앞바다에 와 있소!』 놈들은 무력으로 위협 공갈한다。리 현익은 참다 못하여

『국제 례의도 없이 무슨 무례한 망동이요 두말 말고 뱃머리를 썩 돌리시요』 하고 불 같은 호령을 하였으나 놈들은 도리여 리 현익을 불법 구금하고 란타하였다。

이렇게 판이하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근로자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위하여 각종 다층 주택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리승만 도당은 또 다시 경기도 수원에다 2억 3천 여 만환이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 대 형무소를 발광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리 승만 도당의 체포, 투옥, 학살 만행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많은 세간살이를 싣구 어데로 가오?
—네 저기 새 아빠트로 이사하는 중입니다

—왜 늦었어
—이렇게 많이 싣다 보니까요
—오케! 곧 바로 들어가

리영춘 그림

아니다!

왜냐 하면 워싱톤의 일부 계층이 이것을 지지하며 추동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보도한 미국의 『저명』한 에이•피 유•피 등을 비롯한 어용 출판물들의 보도를 들기만 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관변 측에서까지도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해산』만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문제는 어데 있는가?

문제는 바로 국제 긴장 상태 완화에 독기를 품은 워싱톤의 그리 많지 않은 전쟁 상인들의 고무와 지지 밑에 진행되는 리 승만의 『발라춤』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 아다 싶이 리 승만 괴뢰군의 미국식 무장 장비에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진 전쟁 상인들 및 리 승만에게 있어선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존재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정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 조급하게 더욱 횡포하게 중립국 감독 위원회 사업의 파괴를 위하여 혈안이 되게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미 국무 장관 덜레스씨 조차도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은 모양으로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 감정 (소위 리 승만의 감정)을 알았다。우리는 그 감정에 동정한다』라고 로골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찰 소조의 공산측 인원들이 계속 존속함으로써 대한 민국에서 격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실을 전도하여 말함으로써 이번에는 자기를 철 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모름지기 덜레스씨도 전쟁 상인들의 돈벌이에 한몫 단단히 끼워 있는 때문인지 자기 자신을 망신시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워싱톤의 일부 전쟁 상인들과 리 승만의 불장난에 대하여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영국 외무성도 『우리는 정전 협정의 계속 리행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보기 좋은 망신을 주고 있다。

장성하는 평화의 리념에 악이 오른 전쟁 상인들과 리 승만은 모든 것을 일격에 소탕하고 돈벌이의 원천인 『랭전』을 계속 『고수』하여 대포의 법칙이 력사의 법칙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리 승만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반대 『시위』와 한 줌도 못되는 전쟁 상인들의 선동 행동이 세계의 강대한 평화 력량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모양이다。

생각컨대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 문제의 해결이 전쟁 수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듯이 보여 주어 돈벌이를 단단히 할려는 것 같다。

그러나 돈벌이에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전쟁 상인들과 리 승만은 이것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사업을 계속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결의는 확고 부동하다는 것을……

선장 쁘레스톤과 그의 졸도들은 양각도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어선들과 짐배들에서 물자를 략탈하고 강변 부락에서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만행에 격분한 인민들은 —해적선아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총 궐기하였다。미제 야만들은 포문을 열고 불을 뿜어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했으나 인민들의 항거의 웨침은 더욱 높아만 갔다。무사 박 춘권은 단신으로 야밤에 〃샤만호〃에 돌입하여 놈들의 경계망을 뚫고 리 현익을 구출해 냈다。

평안 감사 박 규수는 인민들의 애국적 궐기를 깊이 참작하여 미국 해적들을 무력으로 소탕할 것을 결심하였다。장시간 작전 계획을 토의하고 박 춘권의 제의대로 —대동강 상류에서 무수한 쪽배에다 화약과 신탄을 싣고 불을 달아 떠내려 보내여 〃샤만호〃를 불 속에 포위하고 태워버리기로 하였다。이리하여 미국 략탈자들에 대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소탕전은 시작되였다。

9월 2일 새벽 불길 솟는 수 많은 쪽배들은 격류를 따라 〃샤만호〃를 향하여 돌진했다。대동강 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였다。인민들은 무장과 장기를 들고 궐기하였고 우리의 해안포들도 불을 뿜었다。

간악한 해적들은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발광적으로 총포를 란사하며 발악하였다。불타는 쪽배에 포위된 〃샤만호〃에서는 드디여 불길이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였고 인민들의 승리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였다。

〃샤만호〃 우에선 불에 타 죽는 놈, 물에 떨어져 죽는 놈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로 대 수라장이 벌어졌고 해적 선교사 토마스와 또 한놈은 간신히 강 언덕에 기여나와 목숨을 빌었다。

이미 90년 전에 처음으로 피 묻은 침략의 발길을 우리 조국 강토에 들여 놓은 미국 해적들은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백인균 그림

만화 소식

장진팡 그림

—가만 있어 한푼도 못가져가

—매우 좋소 오물이 많이 많이 있소

매국 역도 리 승만의 기만적인 "농지 개혁"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리 승만 도당의 수탈 정책은 남반부 농토의 대부분을 계속 지주 놈의 손에 집중시키고 있다

—발 붙일 자리조차 없이 쫓아든다

「지원자」

부산시의 지방 검찰관 앞에서 신 현수는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였다。

『검찰관 어른!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초량동에 있는 전당포에서 틀림없이 양복 한 벌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복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 놈아 바른대로 말해……』

『네 네…… 바른대로 말해서 절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보시다 싶이 왼쪽 다리가 병신입니다 이것은 국군에 들어가 북진 전투를 할 적에 부상 당하여 병신된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일터가 있어야지요 그래 죽을 지경이 되여 하루는 미군 빵 공장에서 식빵 한 로막을 정말 한 로막입니다 그것을 훔쳐 먹은 죄로 다섯달 동안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어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관 어른! 나와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나요 밑천이 있어서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암만 생각해 봐도 굶어 죽긴 싫고……그렇다고 딴 도리는 없구요 그래 매맞고 고역을 치루는 것이 무섭기는 하나 에라! 징역살이라도 하게 되면 콩죽이나마 죽지는 않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든군요 그러나 그냥은 안 받아 줄 것 같고 해서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서 양복을 훔치려고 했지요』

『무어라고 그래 징역살이를 지원한단 말이냐?!』

『정말 그렇습니다 서뿔리 돌굴어 다니다간 결이 죽음을 하여 개 밥이 될 것이고 해서 아여 알아 채리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래도 남북 통일이나 될 때를 기다려 볼까 했지요 검찰관 어른! 결국 저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감옥살이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좋은 선물」

서울시 성동 구역에서— 마장동 사무실까지 빨리 모이라는 전달을 받고 인순 어머니와 함께 문식 어머니도 달려가 보았다。동 사무실 앞 마당에는 추럭 한 대가 서 있는데 대개 아낙네들과 어린 애들이 그리고 간혹 령감들이 끼여서 모두들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는 듯 웅성거리고 있었다。이윽고 동 사무실 안에서 나온 검은 테 안경에다 검은 례복으로 점잖게 채린 오십 남직한 사람이 추럭 짐간 우에 올라서드니 조그마한 책을 추켜 들고서 정중하게 말을 했다。

『여러 동포 형제 자매들이시여! 나는 지금 우리의 선량한 미국 형제들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상한 당신들을 위하여 보내 온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대포와 총을 주어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 주고 있는 미국의 형제들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우리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며 또 미국 형제들을 대신하여 북진 통일의 피를 흘리는 데 주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그리고는 마치도 무슨 상장이나 수여하듯이 엄숙한 낯으로 그는 자동차 짐간 속에서 선물을 한가지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련속『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하는 소리를 외우면서……

그런데 어린 애들이 먼저 어물거리다가 다가가서 그 선물들을 받아 들더니 "쳇" 하고는 내팽겨치는대로 다 낡은『신약 전서』며『찬송가』책들이 여기 저기 흩어졌다。

『인순 어머니! 이게 무어요 우리를 보고 가지라는게가요?』

『넨들 알겠수? 저 까마귀 같은 목사가 말하지 않아요 미국서 보내는「좋은 선물」이라고……』

『에이 더럽다! 참…… 언제나 하는 꿀들이란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면서……또 비싼 값을 받자고 하겠지!』

『왜 아니겠소 제발 그 놈의「피의 댓가를 요구하는 미국 하느님 신세」를 면했으면 오작이나 좋겠어요!』

—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

승 화

— 뜨락또르 엔징 소리 흥겨운 공화국 북반부의
전야에는 풍작의 환성이 높고…

— 땅크소리 짓누르는 남반부의
전야에는 기아의 신음 소리만 높다

최영근 그림

맥카디의 광언

김현석

4렬강 정부 수뇌자들의 제네바 회의 이후 국제 관계에서는 일정한 완화가 조성되였다。

따사로운 미풍에 아름다운 음악인양 평화란 말이 인류의 심장을 뜨겁게 적시고 있다。

진리는 태양보다 더 밝아 하늘에 서리였던 암운을 걸어 제끼고 있다。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명랑한 소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인류의 갈망인 평화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호도 경각성을 늦출 수 없다。

인류의 류혈을 강요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절망적인 몸부림을 친다。

코푸라처럼 독을 품고 꿈틀거리는 전쟁의 사신들의 일거 일동을 경각성 높이 주시해야 한다。

× × ×

맥카디 맥카란 맥카디

이름마저 항렬 달아 붙였다。

여기에 노울랜드를 첨가하면 완전히『미국의 소리』다。

이『미국의 소리』가 제네바에서 4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 이후 더욱 맹꽁이처럼 부풀어 올랐다。

—무얼 꺼린게 있단 말인가。입을 삼갈 것 없다。

입을 기관총. 대포 삼아 막우 쏘아 대라。

하도슨 강반의『자유의 녀신』도 보루 삼아야 할 판에 제네바 려행이 무슨 한가한 수작이란 말이냐。

전 아메리카가 신경 쇠약에 걸릴 국제 정세 판국에 회담은 무어고 협상은 무어야

원자탄 공격! 원자탄 공격!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찬스를 다 놓쳤단 말이다。

포레스탈의 제자들—워싱톤 교외의 별장 테라스에서 부어 오른 맹꽁이들이 소다물만 들이키고 있다。

번뜩거리는 대머리의 이 몇몇 아메리카 상원 의원들이 제네바 회의 이래 완전히 히스테리 발작증에 사로잡혀 주책 없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맥카디의 히스테리는 부단히 발작된다。

아메리카의 전 하늘을 닫아 걸어라。꽉꽉 닫아 걸어라。성층권까지……

아메리카의 전 원자포를 일제 사격으로 탄막을 쳐라。

아메리카의 전 함대가 지구상 전 지역의 모든 개울에까지 떠 있어야 한다。

아메리카의 총검이 전 인류의 심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이래서나 마음이 놓일 것이다。

협의란 무엇이며 호상 신뢰란 무엇이냐。

원자탄의 비밀을 평화 사업에 결단코 내여 놓을 수는 없다。

이 "영리"한 아메리카 상원 의원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어름이 풀리면 그 어름 녹은 물 속에 빠져 죽으리란 것을 알고 있다。

포레스탈은 마천루에서 떨어져 터져 죽었건만 자기들은 어름 녹은 물 속에 빠져 맹꽁이처럼 부풀어 올라 죽으리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악이다。

발작증으로 전신에 오한이 쓸며 목을 움추려 뜨린 이 상원 의원들은 이번에는 소다물이 아니라 독한 아부산만 들이킨다。

아하 이렇다간 포레스탈의 꼴이 영락 없겠다。

독한 술바람에 기운을 얻은 아메리카 상원 의원들은 필사의 목청을 돋구어……

—원자포를 일본으로, 남조선으로 실어 나르라.

차렷 장 개석! 제7함대 따라 본토로!

차렷 리 승만! 제8군 따라 북진 북진!

차렷 느고 딘 디엠! 콜린스 지휘 하에 일로 북상 북상!

그리고는 히틀러식으로 손을 번쩍 쳐들고 머리채를 멋있게 흔들어 보이려는데 자라목마냥 움추러들은 번대 머리가 말을 잘 안들어 어깨만 맹꽁이 숨쉬듯 들먹거릴뿐……

손님을 끌려는 수상

최근에 호주의 수상 멘지스는 자기 나라가 주위에서 섭섭하게도 망각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기 위하여 반드시 광고를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였다。그리하여 곧 그는 이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연설을 하고 나서 호주는 원자탄 실험에 쓸모 있는 수백만 평방 마일의 령토를 내놓겠다는 것을 언명하였다。연설자의 말에 의하면 이 실험의 실시는 "호주 인민의 재산과 생명에는 하등의 위험성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멘지스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들이 원자탄 실험을 금지한다면 우리 나라를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만일 멘지스가 자기의 언명에 대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멘지스는 실로 자기 나라 인민을 아주 멸시한 격이다。

끄로꼬질 15호

간단 명료하게

대만의 괴뢰 장개석의 군사 계획에는 새로운 조목이 나타났다。국민당 두목은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바를 미국의 상원 의원 마가레트 스밀 녀사와 주고 받고 있었다。얻어 맞은 "총통"은 "언제인가 중국 령토를 점령하고 미국에 놀러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대만에 있는 이 "정복자"의 공상 과정이 쉽게 상상된다。즉 밧짝 실증이 난 대만 섬에서 떠나 머리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올려 놓고 북경에 나타나군 다음에는 바로 미국 캐롤리 궁전의 손님으로……

장개석의 군사 계획에 대하여 중국의 속담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즉 "개입에서 상아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끄로꼬질 18호

어떻게 음모들이 작성되고 있는가

미국 중상자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정기적인 공산주의자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리라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상원 의원 마까르트의 패거리들은 심지어 국무성 내에서까지 "빨갱이"와 "좌익당"들의 "간채"을 들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최근 에지프트에서는 미국 사람들을 반대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음모"를 폭로하려고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아이그! 그러나 도대체 어데서 그 음모를 찾아내노? 고대 삐라미트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서 있고 지나가든 락타는 이 탐방 기자의 렌즈에 야유적으로 침을 뱉지, 락타를 끌고 가던 부지런한 농부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무르니 대답하기를 "닐의 골짜기에서도 싸하라 사막에서도 그런 현상은 보지 못했소"라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사냥군은 그냥 싸돌아 다닌다。그리하여 바로 카이로의 신문 매점들에 의하여 사냥군은 드디여 서광의 빛을 얻었다。즉 왜 아라비야 사람들은 표지에 매력 있는 "처녀"가 그려 있는 미국의 잡지들을 랭랭하게 본숭 만숭하는가? 왜 아라비야 사람들은 이 잡지들이 못마땅한듯이 머리를 흔드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쏘련의 출판물을 신이 나서 사가는가?

옳다 됐다! 빨리 전보를!

다음날 미국 신문 "웸베루 포스트" 지에는 카이로에서 온 전보가 전달되였다。즉

"공산주의자들은 아라비야 사람들에게 미국의 무도덕성을 교활한 수단으로써 설득시킬 목적으로 표지에다 "처녀"를 그린 미국의 잡지들로써 카이로의 신문 매점들을 범람시켰다。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스포쯔와 과학에 대한 론설을 쓴 쏘련 잡지들을 유포시키고 있다。조사한 결과 이것은 미국을 모독하며 로씨야의 친구로서 점령하려는 역시 빨갱이 음모의 첫 계단인 것이 분명하다"

만일 양키들이 "처녀"를 그린 미국 잡지를 가지고 엉터리 없는 술책을 취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아라비야에서 발 붙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끄로꼬질 15호

목적은 달성했으나…

말라이에 있는 영국 식민지 략탈 당국은 말라이 빨찌산을 반대하여 대 규모적인 전투 행위를 계획했다。

부락에 대한 폭격은 이 전투 행위의 절정으로 되였으며 오늘날까지 보기 드문 일이였었다。

결과에 빨찌산 성원 수는 이상스럽게도 변경되였다。폭격 전까지는 5,560명이였던 것이 그 후에는 6,560명으로 되였다。즉 집들이 파괴된 전체 말라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자기 집으로부터 벗어나 빨찌산으로 갔다。

식민지 략탈 당국은 곧 이 괴상한 현상의 연구에 바빴다。

유고슬라비야 풍자 잡지 "요쥬"

자기편 사람

토이기의 내무성 비밀실에는 아무도 얼씬 못한다。

—쉿! 무용자는 출입 엄금이요!—하고 경찰은 꽥 소리를 질렀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 보고 몇마디 영어로 말하였다。

—용서하십시요 각하 나는 당신이 우리 토이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하고 경찰은 우물 쭈물 말하였다。

파리의 생활

—나릿님 몇 프랑(불란서 화폐)만 동정하여 주시요

—불상한 사람 대단히 유감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한 프랑도 없구려

—아! 미안합니다 나는 전혀 잊었댔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딸라로써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불가리야 "쓰찌르쩨"

(한동신 역)

국제만화

희망이 없는걸……

원자력 분야에서 쏘련은 이미 미국을 훨썬 릉가하여 눈부신 성과들을 평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에 원자 전쟁 광신자들은 아연 실색하고 있다

월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는 미제는 월남 총 선거의 실시를 태팡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제 연출 하에 진행되는 남부 월남에서의 괴뢰 연극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력 축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고무되여 미국 내에서도 최근 군비 축소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부대통령 닉슨은 미국이 『자기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기의 병력을 유지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평화의 목소리를 막아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일어 선다

압박이 심하여 질 수록……

그 반항은 더욱 커진다

장진팡 그림

대중벽보판에 게재하는 만화에 대하여

(전호에서계속)

대중 벽보판에 게재하는 만화는 반드시 착색을 해야 합니다。만화는 색갈이 있고 없는데서 그 선동적 효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출판물에 게재하는 만화는 인쇄 조건을 고려한데서 대개 색갈이 없는 단색 만화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출판물에 게재된 만화를 모사하여 벽보판에 전재할 경우에 있어선 그 만화가 가지는 내용에 알맞는 색갈을 창발적으로 착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이 점에서 흔히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니만큼 만화를 착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화에서 과장한 부분을 색갈로써 뛰여나게 처리한다고 해서 너무 눈에 자극을 주는 강렬한 원색 사용을 피해야 하며 되도록은 단순한 중간 색갈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그러나 아무런 고려도 없이 조잡한 색갈을 함부로 착색한 만화는 도리여 만화가 가져야 할 강렬한 과장 부분과 대조하여 선명한 효과를 보여 주는 특점들이 완전히 손상되고 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벽보의 직관적 가치에서나 선전 선동적 면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벽보판에 게재하는 만화를 착색할 적에는 특히 단순하고도 선명한 색갈을 선택하는 한편 만화에서의 과장한 부분과 선명한 대조점들을 잘 고려하여 착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화 착색에서 주의해야 할 점

복잡한 색갈로 처리된 만화

단순한 색갈로 처리된 만화

편집 위원 장 진 팡 (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효
서 만 일 신 봉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행소 활 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 쇄 1955.9.1 ㄱ…30172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발 행 1955.9.15 값(50원)

예 • 쉐그로브 그림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5.20호에서 전재

재정상

체신상

로동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리트바,라트비야, 에스또니야의 이전 부르죠아 지배층들은 아직까지 쏘베트의 빨틱 연해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부흥시킬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운수상

무역상

내각 회의

예 휘모브 그림
쏘련 풍자 만화 잡지 "끄로꼬질" 1955.22호에서 전재

무기 공장주 — 정말 열이 난다!

馬得 그림
중국 "만화" 잡지 1955.55호에서 전재

약소 국가에 대한 미국의 『기술 원조』

일맥 상통

값 50원

장진광 그림